

韓國癩患者위해 아낌없이 바친 半世紀

七旬의處女머리(慕禮理)博士

聖堂洞英國救癩宣教會서 오늘도

한국과 한국의 나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한국인의 七순처녀가 우리나라에 전래하고있다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지지않고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四二년전 처녀의 몸으로났선 한국땅에 건너와갔은 고조를 겪으며나환자를위해 늙어간 「프로렌스·J·머리」(慕禮理)라는 이름의 의학박사가지금 이순간에도 나병환자를위하여大邱에있는 英國救癩宣教會에서 일하고있다



그녀가 무엇때문에하필이면 생활조건과인술이 판이한 한국에 건너와 게다가 모두 가질어하는나병환자를위해갔진 청춘을 불태워 버렸는가는 그 하나님의엔 아 파이」이상으로 내접

興으로 내려와 다「스파이」로 되어 六개월의 감옥

「법원에서 十년간봉 사했고 梨花여대의 학부도 조직했다 그후 江原道 原州에 가서 濟惠병원」을 설립하여 一九五八년나 이 많아 은퇴 본국으로 일시 돌아갈때까지 무의종과 다름없는이 곳에서 원장의사 간 호원을 겸하며 끊임 없는 봉사활동을 계속 다룬어은 환자만해도

보는 그녀는 그녀가 이세상에 태어날때갓 고나온 모든것을 이 제 아낌없이 모두바 아갔던 그녀가 그세 한국을 잊지못해 주 위의 만류도부러치고 음을 음질일수있는등 어만이라도 二·三년 더일해보겠다는 으로 지난 9월 3일 다시 건너온이해 시내 聖堂洞八一에 자리잡 은 英國救癩宣教會주 한본부에 몸을맡기고있

「내가 겪어본 한국인 환자들은 죽기바 로전에 의사를 부르 고 나환자는 손발이 떨어져나간 병진이가 된후에야 찾아온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원래의학은 일찍찾 아오는 환자를 천형 으로부터 구할수있다 」고 다짐했다 ○: 제2의 조국인 한국에 묻힌다면 죽 기전까진 폐를 끼칠

두손과 사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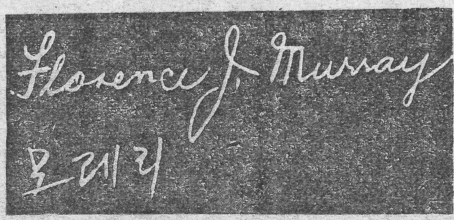
日政때 間諜 혐의로 獄살이 韓國에 묻히면 폐기친다고

國境없는 一生

생활을 치룬뒤 추방 된 그녀는 해방이되 자의 말이고보니 명 다와 서울「세브란스」 70세를 바라

○: 그녀의 일평생 을 지배해온 생활철학 은 하나님과 「사랑」 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평생을 홀몸으로 한 국에서 일할수있을것 도 실은 「사랑」에서 그해답을 찾아야할것 같다 「주어진 생명은 단 한번 한번 지나갈 때 할일을 못다 하면 회란 다시없다」고 말 한 그녀는 「내가 한 국에서 일한것이야 별 것였다 손두개로 지 루二十四시간에 매되어야하는 일개여 성이 무엇을 할수있 겠나? 주위에서 서로 가 도와주어야겠다」 고 말꼬리를 걸은하

것이니 죽을때는 의사 인 동생과 여동생이 있는 「카나다」로 가 겠다고 말하였다 ○: 그녀가 현재일 하고있는 신교회는 一八八四年에 설립되 는데 十五개소의 치 로소를두고 一천四백 제가환자들을 무료치 로해주고있다 (시진 리) 「박사의 육애찬 「머 리」 「싸인」)



—생을 한국인을 위해 바친

75세나 된 처녀라는 위



處女 머레이 博士가 귀국한다

50년후 대한 정신의학

미국사람을 한 줄이나라도 소개해 주자. 머레이박사는 1894년 캐나다 노타스토틀에서 태어났으며, 코네티컷대학에서 정신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그가 1921년 1월 1일 한국에 왔으며, 27년 후인 1948년 5월 5일 대한정신의학회를 창립하고, 그 후 1950년부터 1969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41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그 후 58년까지

세인트피터스버그



수리하는 일이

1969년 5월에

半世紀에 걸친 醫療奉仕

75歲의 老軀로 歸國해 섭섭하다고
“아직도 한국음식 매운것은 못먹어요.”
1921年 9 월에 와서 1969年 5 월에 떠나

1958년 강원도원주

의학 박사로서 50년간

한국에서

惜別의 仁術 40年

故國 캐나다로 가는 75세女醫 莫里博士

의 別離를 人壽의 現

○四十여년동안이나 우리나라의 가난...
 ○한 병자들을 위해 자애로운 손길...
 ○한 여의사가 이제는 인종차별의...
 ○노령의 퇴역 교육에 돌아갈 체의...
 ○를 차리면서 정군「제」의 고구「용」...
 ○...一九二二年二月六...
 ○...一九二二年二月六...
 ○...一九二二年二月六...



40여년간 인술에 바치려 하던 「모리」 박사. 이 바지를 갈고 있는 「모리」 박사.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 그의 공을 거머

독신생활
 환자들 보며 獨身生活
 停年으로 歸國했다가 되돌아오기도

계속 한국을 돕겠습니다

○... 청년이 되어 귀국...
 ○... 청년이 되어 귀국...
 ○... 청년이 되어 귀국...
 ○... 청년이 되어 귀국...
 ○... 청년이 되어 귀국...

李時憲 기자

不遇한병자에 余生을 獻身한 聖處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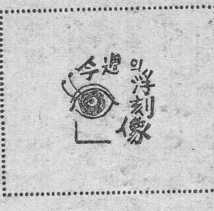
40년의 醫療奉仕를 끝내고 歸國하는 모리 선교사



지금으로부터 48년전까 월 중순 고국이나다를 위해 초대처럼 버틴다. 나다 선교사들과 동행하 아갈 채비를 하면서 석 텃절이다. 여 한국의 가난한 병자 별의 정을 달래고있다. 「모리」박사는 50여년 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모리」박사는 1921 전 고향 노바스코티아 공은 사명감을 갖고한국 년 26세의 처녀로서 한 달하우지스」의과대학에 에 발을붙인 「프로렌스」 국어와 실로그의시간과정 남다시 한국에서 돌아온 J. 모리」박사가 오는 등 령과 인정전체를 한국을 그의부친으로부터의사가 없

어 많은 사람이 고통받 고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응징을 했다고한다. 「모리」박사가 처음진 료를 시작할땐한양재 해병원 46년전의 이야기 이다. 당시 한국의 병환사 경이란 형편이었었다. 이러한 불포의 지역 에서 그는병환을 계속 하고 혼자서 나와 의과 산부인과를 다맡아보지만 호환양생의도 분량현을했 다. 2차대전때 의결수 없 이 귀국할수밖에 없었으 나 해방이되자 곧 다시 한국을찾아 의화내외의세

정년퇴직이되어 귀국한 후에도 한국사람들이 사 모하는 그 전생애 보람 것이다. 「모리」박사는 2차대전때 의결수 없 이 귀국할수밖에 없었으 나 해방이되자 곧 다시 한국을찾아 의화내외의세



브란스병원에서 봉사생활 을 계속했다. 6.25사변을통해 또한 번 귀국할수밖에 없었으 나 그다음해에다시돌아와 그의 따뜻한 손길을 기 다리는 인정의 손길은부 었으므로 공을수 없었은

다. 그곳서 2년을보내뒀 서울로 다시돌아와 연세 대 부순제브란스 병원에

26세 처녀로 내한 불모의 地域에서 생명바쳐 봉동 停年 끝내고도 계속해서 활동

그러나 이제 는 노령환자 당할 길이없이 제2의고 향을 떠나야한다. 그의항 을 치하하고 정부에서신 구민을장들의 많은 표창 장을 수여했지만 그의전 생명을 바쳐 심어온 사 람과 헌신의 씨앗과 한 국교회를위해 힘써온 그 의모험은 그의 손길을거 처간많은 절현환자와 나 병환자 들을 보며 한국민의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한국사의 모든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더이상 일 을 계속할수없고 돌아가 게되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한국을 도울것을 찾겠 습니다」라고 나눈희망하 는 노쇠한 피부는 젊었 고 그의 부친편 한 배 발이 헌양의 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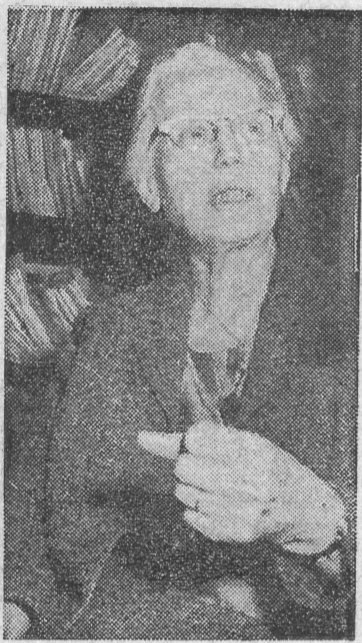
Chosun Ilbo Weekly Edition
March 1969

운동화신고 산골찾아 "하느님 믿으세요"
学校-醫師 없다는 말 듣고 韓國行 희망
伝道와 仁術로 76歲까지 処女로
病院-学校-教会 세우고

金剛山등 안간곳 없고
宿食 같이하며 癩病患者 돕고

이것도 계속 옮기려하였다. 청순하고 나
안하기만하면 이 조그마한 그릇이 이리
미 부민은 평안전통이므로 평안. 총 7
평년의 평안전통을 찾아서 30년 전부터 다
평안전통을 수호한다. 지리나 학교, 만
평안전통. 1953년 평안의 조그마한 그릇이
평안전통. 평안전통을 그릇에 담아내
평안전통을 그릇에 담아내

『한국가서도 신문보고 다 알았을거냐』
그런데 1951년 전쟁중의 다시한
후의 삶입니다. 1953년까지 삼(차
등)했지요』
다시 부산의 도학,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평안의 이천년의 전통을
평안전통



▶韓國에 「선교50年」을 심고 귀국하
는 76歲의 모레리女史.

이도 없었다.
다시 또 원주로 내려왔다. 이듬해 X
광선 검사자를 빌었다. 5년명의 결핵환
자 치료에 힘쓰는 다시 타기 시작했다.
원주 나병환자 수용소에서 2년명의 구
조작업도 동시에 나사야 했다. 여기서 3
년을 뛰었다.
다시 그의 進路는 大邱였다. 2년명의
환자를 위한 당시 의사였던 원순제의 간
곡한부의 있었었다.
『순제님 한번 찾아가십시오. 오 할아버지
이 평정수술할 때, 유선 못 판이제했
는데, 거짓말 나로게 시켰습니다. 수술
하니까 목의사 발판 나왔습니다. 그야
이 기관지속의 발판 들어가 그만 죽
었습니다. 심한 일 아닌가요? 개탄지
못한 사람,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한두가지 오기까지 오기나.
이 말에 그가 귀국하기로 했다. 단
마르 『鐵道의 韓國인』이 아닌가
신순제를 그루로 만난다. 다음에
만났고, 한국의 『男性』과 『女性』의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평정수술의
다. 평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그
다. 평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다. 평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이 한마디 평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카르타기 평정수술, 평정수술의 어떤
순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평
정수술의 어떤 어떤 것이다.

남겨놓고 싶은 얘기로는 "女性教育 더 強調돼야 한다"

감명깊은 映画 「春香伝」은 세번이나 봐

자이 한마디로 韓國人을 一蹴하고 떠나
려는 것일까?
『한국 페르나 자유업으로 시아버지의
탁박아야 수술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합니다. 53
살 피운 임종년 여자 환자였었다.
53살 피어도 시아버지 허락 받
아야 합니다. 허락받으려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까.』
戰地의 後方에서 女史는 꽃나무같은
青春의 生命을 가지고 살아왔다. 한국에
서의 최대 기쁨을 말하니까 『아름다운
자자 나를 때』라고 더 이상 말문을 열
지 않는 걸 볼때, 그의 가슴엔 무엇이
소용돌이치고 있기에 그런 것일까?
『피에듀케이션-피에듀케이션!』
모두는 또 교육의 자주성을 부르짖
는다. 한국엔 女性教育이 또 강조되어
야 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 많은 한국, 책값, 표복
값, 교통비 모두 돈드는 말만하고 여
자 공부 안시키면 무슨 사람 되겠어요?
모든 것이 기계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공부 안하고 삽니까? 하교할데
없다고, 길 멀어 큰 집만 걸리고 합
니다. 가난한 사람 어디 가서 살든지
적정 안하고... 설립합니다. 아무리 나

한국에서 일하는

異國여성



의료사업 48년, 머레이博士

세브란스 병원 醫務기
특실, 중앙회의 각종 카
드와 신류가 그 특색을
드러냈다. 그밖에 조그만
프린트의 그림을 둘러두
리거나 벽안의 그림이나
파티와 라디오 등의 75

「전망의 바깥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것을 사
람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
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삼의보람을 느낀다. 그러
서來 40년만의 정년의
적으로 환부의 되었다.
결국 48년을 학부의 결
핵환자, 나환자를 돌보는
이전 생활기간이었다. 늘
「머레이」박사는 이제 들
어가면 또 일 자리로 찾아
들었다. 30년
력을 향하여 30년
을 보시고 며칠 앞까지
바 세우기가 보통이었다.

절망에燈불안겨줘

結核患者의 어머니로 삼의보람 느끼고 歸國길

나와 함께한 자들 48년
한 나라에서 48년
머레이 박사
「전망의 바깥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것을 사
람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
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삼의보람을 느낀다. 그러
서來 40년만의 정년의
적으로 환부의 되었다.
결국 48년을 학부의 결
핵환자, 나환자를 돌보는
이전 생활기간이었다. 늘
「머레이」박사는 이제 들
어가면 또 일 자리로 찾아
들었다. 30년
력을 향하여 30년
을 보시고 며칠 앞까지
바 세우기가 보통이었다.

대한민국

(사)한국

40年을韓國에 바친 캐나다 할머니

癩病·結核根絶事業 돕다 어제離韓

우리나라醫療界에 큰貢獻

가난한 患者에 더욱親切하게

淪落女性·어린乞人들救濟도



40년을 한국에 바치고 떠난 '미네이' 박사

○년을 우리나라를 위해 바친 공적은 지난 11월 보사부장관실에서 열린 장관의 표창단으로는 누구도 추후의 보답되었다고 생각할수 없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이며 의학박사인 이 할머니는 1905년 이라기보다 그 해인 만 68세를 열달 앞두고 한국을 떠났었다.

이 할머니는 해방전까지 威濟醫院院長, 海防부로는 '세브란스' 병원부원장을 거쳐 原州聯合기독병원 이사장 겸 의과과장으로 있으면서 京畿道廣州군 九川면千湖동소재 나병미감(未感) 아문수용소 및 原州나환자수용소의 설립자다.

그는 선교사도보다 우리나라의 토착의 선구자로서 더욱 유명하다.

나병미감에근접사업에바

○년의 공적은 절묘인화「환」박사라는 분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 하였다고 한다. 당시 威濟에

있던 「미」박사도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당시는 한 장에 「○전」씩으로 기금을 모집하였다.

이것을 사면 결핵병을 고칠수 있다는 말을 소박하게 받아들인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것을 사서 쓰는 진정한 자의 가슴에 불이 되고 병나기를 기다리고는 「던센스」도 많았다. 「그때」

○전이면 지금 1,000환보다 더 「필요」한 다. 「도박」도 막 「화한표」 「주말」 「엑셀트」로 이 할머니는 당시와 지금의 돈가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의 한국말은 진짜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휘가 풍부하다. 「미」박사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사랑을 이룬은 것을 발전하고 一 주회씩 부녀자들을 모아

1922년 9월 6일 28세의 젊은이로 한 국 땅을 밟았던 「캐나다」 여인은 1951년 12시 5분 金浦공항에서 六八세의 은발을 바꾸기는 할머니 나로 변하여 「씨. 에이. 티」 항문편으로 한 국을 떠났다 「프 로렌스. J. 더 레이」라는 이 할머니가 무려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바친 공적은 장관관실에서 열린 장관의 표창단으로는 누구도 추후의 보답되었다고 생각할수 없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이며 의학박사인 이 할머니는 1905년 이라기보다 그 해인 만 68세를 열달 앞두고 한국을 떠났었다.

이 할머니는 해방전까지 威濟醫院院長, 海防부로는 '세브란스' 병원부원장을 거쳐 原州聯合기독병원 이사장 겸 의과과장으로 있으면서 京畿道廣州군 九川면千湖동소재 나병미감(未感) 아문수용소 및 原州나환자수용소의 설립자다.

그는 선교사도보다 우리나라의 토착의 선구자로서 더욱 유명하다.

나병미감에근접사업에바

○년의 공적은 절묘인화「환」박사라는 분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 하였다고 한다. 당시 威濟에

있던 「미」박사도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당시는 한 장에 「○전」씩으로 기금을 모집하였다.

이것을 사면 결핵병을 고칠수 있다는 말을 소박하게 받아들인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것을 사서 쓰는 진정한 자의 가슴에 불이 되고 병나기를 기다리고는 「던센스」도 많았다. 「그때」

○전이면 지금 1,000환보다 더 「필요」한 다. 「도박」도 막 「화한표」 「주말」 「엑셀트」로 이 할머니는 당시와 지금의 돈가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의 한국말은 진짜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휘가 풍부하다. 「미」박사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사랑을 이룬은 것을 발전하고 一 주회씩 부녀자들을 모아

흥고 육아병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유유」의 제조법을 가르쳐주었다.

「공」으로만은 공유유 「공유유」보다도 공유유도 공유유와 비슷하고 이 들철에서 상하지도 않고도 많이 누지오. 「박사」는 공유유를 보급한 이유들이 어떻게 말하였나.

이 밖에 박사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시까지 일하며 어떠한 농민의 질병을 무료치료하고 구해 에 팔린 윤락여성들을 구해 주고 거리로 나가지만 하 면 저지 아이들을 잔뜩 데 리고 가서 손수 복음을 시켜주고 예쁜 학상 시 품가난한 교회에 나가서 보고: 동등 일화는 끝 이었고 지금 原州나환자 수용소의 100수용자에 게는 친어머니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威濟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威濟도말서를 조금 도 맡지 않았느냐는 기자질 문을 받자 「서울에 왔더니 사 투리를 쓴다고 모두들 놀려 서 조금 고쳤습니다」 하며 특권을 부치지 더 유쾌하게 웃는 것이었다.

醫學常識

어 우리인류의 큰극심이

나병은 과거에 있어 그 치료 방법이 막혀서 아주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년에 성공적인 치료 방법이 이루어져 한류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에 많은 나환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고 좋은 성과를 얻은 동시에 완치된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나병치료에 있어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신체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신체의 변형이 생겼을지라도 적당한 치료와 양호한 생활 습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나병이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되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 나병은 신체가 약해져서 나환자가 되기 쉽다. 나환자 중에는 일부가 완치될 수 있다.

잠나다 그련데 수족이나 다리가 부어 오를 수 있다. 이는 나병의 증상이다. 나환자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면적은 수족보다 작지만 흉측한 형태를 띠며, 나병의 특징적 징후이다. 나환자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나병은 신체가 약해져서 나환자가 되기 쉽다. 나환자 중에는 일부가 완치될 수 있다.

가치로는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환자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나병은 신체가 약해져서 나환자가 되기 쉽다. 나환자 중에는 일부가 완치될 수 있다.

癩病을 早期 치료 하자

도 레 리 슘

나병은 신체가 약해져서 나환자가 되기 쉽다. 나환자 중에는 일부가 완치될 수 있다. 나병은 신체가 약해져서 나환자가 되기 쉽다. 나환자 중에는 일부가 완치될 수 있다.

韓國癩患者爲해 아낌없이 바친 半世紀

七十有八處女 머리 (慕禮理) 博士

聖堂洞英國救癩宣教會서 오늘도

한국과 한국의 나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한국
의 七순처녀가 우리나라에
전재하고있다는 사실은 그
리잘 알려지지않고있다 그
러나 지금으로부터四二년전
처녀의 몸으로낫선 한국당
에 건너와같은 고초를 겪
으며나환자를위해 늙어간「
프로렌스·J·머리」(慕禮
理)라는 이름의 의학박사
가저금 이순간에도 나환환
자를위하여大邱에있는 英國
救癩宣教會에서 일하고있다



그녀가 무엇때문에하
필이면 생활조건과인
습이 판이한 한국에
건너와 게다가 모두
가슴아하는나환환자들
위해값진 청춘을 불
태워 버렸는가는 그
너나 하나년의엔 아
파이」이상으로 대접
받지못하게 했다
「카나다」에서
「카나다」연립장로
교회는「카나다」연
립교회에 매속되
고나환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은「카나다」연립
교회에서 보려고
「카나다」연립장
로교회에서 보려고
「카나다」연립장
로교회에서 보려고

두손과 사랑의

日政뎌 間諜혐의로 獄살이
韓國에 묻히면 폐기친다고

國境없는 一生

興으로 내려와 이곳
에서 二十년을 지냈
다「스파이」로 오인
되어 六개월의 감옥
생활을 겪으며 끊임
없이 봉사를하며 제
국에서 일할수있는것
도 실은「사랑」에서
그해답을 찾아야할것
같다「주어진 생명은
단 한번 한번 지나갈
때 할일을 못다하면
회한 다시없다」고말
한 그녀는「내가 한
국에서 일한것이야 별
것없다 손두개로 하
무二十四시간에 지
배되어야하는 일개여
성이 무엇을 할수있
겠나? 주위에서 서로
가 도와주어야겠다」
고 말꼬리를 걸손히
살면서 이정도면 한국
가「하루고유창한 이
사투리로「유모아」에
도 인생지킴은 그녀
는 나환환자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생활을 치룬뒤 추방
되다 그녀는 해방이되
자서술「세브란스」
년으로 70세를 바라
다

「평원에서 十年간봉
사했고 梨花여대의
학부도 조직했다
그후 江原道 原州
에서「濟惠병원」을설
립하여 一九五八년나
이 많아 은퇴 본국으
로 일시 돌아갈때까지
무의촌과 다름없는이
곳에서 원장으로서 三
호원을 겸하며 끊임
없이 봉사를하며 제
국에서 일할수있는것
도 실은「사랑」에서
그해답을 찾아야할것
같다「주어진 생명은
단 한번 한번 지나갈
때 할일을 못다하면
회한 다시없다」고말
한 그녀는「내가 한
국에서 일한것이야 별
것없다 손두개로 하
무二十四시간에 지
배되어야하는 일개여
성이 무엇을 할수있
겠나? 주위에서 서로
가 도와주어야겠다」
고 말꼬리를 걸손히
살면서 이정도면 한국
가「하루고유창한 이
사투리로「유모아」에
도 인생지킴은 그녀
는 나환환자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겪어본 한국
인 환자들은 죽기바
로전에 의사를 부르
고 나환환자는 손발이
떨어져나간 병신이가
원후에야 찾아온다」
고 일침을 가렸는데
「현대의학은 일찍찾
아오는 환자를 친형
으로부터 구할수있다
」고 다짐했다
○: 제2의 조국인
한국에 묻힌다면 죽
기전까지 폐를 끼칠

Florence J. Murray
모리리

○: 그녀의 일평생
을지배해온 생활철학
은 하나년의「사랑」
이라고했는데 그녀가
평생을 홀몸으로 한
국에서 일할수있는것
도 실은「사랑」에서
그해답을 찾아야할것
같다「주어진 생명은
단 한번 한번 지나갈
때 할일을 못다하면
회한 다시없다」고말
한 그녀는「내가 한
국에서 일한것이야 별
것없다 손두개로 하
무二十四시간에 지
배되어야하는 일개여
성이 무엇을 할수있
겠나? 주위에서 서로
가 도와주어야겠다」
고 말꼬리를 걸손히
살면서 이정도면 한국
가「하루고유창한 이
사투리로「유모아」에
도 인생지킴은 그녀
는 나환환자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